

월요광장

## 5·18 의거(義擧)와 어느 판사(判事)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5·18 40년! 며칠 전 우리는 광주의 아픔과 비극을 가슴에 안고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마쳤다. 30대 말의 팔팔한 장년이면 필자는 이제 70대 말 노령의 나이가 되었다. 그래 모든 것을 잊었지만,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기록으로도 남겨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일으킨 신군부의 무장 반란은 광주의 양민을 학살하는 일에서 시작했다. 권력욕에 눈이 먼 반란군들은 광주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광주 시민 수백 명이 죽고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수천 명이 구속되어 온갖 고문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폭도이자 내란의 수괴, 주요 임무 종사자, 방조자 등의 죄명으로 징역 살던 그때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나는 그때 반란군들의 조작으로 폭도들의 두목이 되어 죽음을 무릅쓴 도피생

활에 들어갔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잡히지 않아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준 의인(義人) 몇 분이 있으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란군들은 광주의거를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조작하여 내란죄라는 죄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만 자기들의 반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란죄 성립을 위해 수괴를 만들어 내고, 또 그에 종사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했다.

모든 시민이 분노해서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항쟁에 무슨 수괴가 있고 종사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므로, 수괴를 정해서 그를 처단하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이때 상무대 법무관들을 통해 수괴로 조작할 대상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지목되고 있음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광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준흠 판사였다.

그때 젊은 관 판사는 나와는 절친했던 후배로 나의 인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던 차, 수괴로 지목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동거숙사기숙하던 나와 연락이 되었다. 거금을 준비한 그는 아밤에 내가 있던 곳으로 찾아와 돈을 건네며 즉각 광주를 탈출해 서울로 가야만 오랫동안 은신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탈출방법까지 알려 주며 나의 생명을 구해 준 것이었다. 고급 승용차를 마련해 광주탈출을 성공시켜 준 사람도 관 판사였다.

5월 27일 도청을 다시 반란군이 장악하면서 광주는 온통 공포와 불만의 도가니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러던 때에 검거 선봉이 불고 폭도들은 자수하라고 온갖 선무공작이 한창이었다. 그 무렵, 6월 5일(토요일) 유럽객의 모습으로 가장해 광주에서 곡성역으로 옮겨 서울행 기차를 타게 해 준 이가 바로 관 판사였다.

광주 탈출의 과정에 또 한 분의 의인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일행 선생의 힘이 컸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겠다. 나는 그때 관 판사의 용감한 의기를 잊지 못한다. "자네 이리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는가?"라고 내가 말하자, "형님, 걱정 마세요, 형님이야 잡히면 죽지만 저야 문제가 생기면 판사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됩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호호탕탕 말하던 3년 차 젊은 판사의 당당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의 직위가 어떤 것인데, 헌신처럼 버려도 두려울 것 없었던 그의 의기,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가 마련해 준 도피 자금과 이일행 선생의 도움에 힘입어 7개월 이상을

무사히 숨어 살다가 결국 80년 연말에 검거되어 상무대 영창에 수감되었다. 내가 잡혀서 영창에 갇힌 며칠 뒤, 나를 면회 하와 준 사람 또한 관 판사였다. 가족도 면회가 안 되던 그때,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고 나를 보기 위해 와 준 그의 용기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관 판사의 정보 입수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광주항쟁에는 주모자와 수괴가 있을 수 없다.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괴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집거할 수 없으니 이 사람 저 사람 거머잡다가 끝내는 내 친구 정동년이나 수괴로 변신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다. 5·17일 예비검속되어 5·18을 알지도 못한 정 수괴가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그런 난센스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항쟁이 반란군들이 조작해 낸 폭동이자 내란이라는 사실을 바로 관 판사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게 옹변해 주고 있다.

부장판사로 퇴직하고 오랫동안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한 관 변호사는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가지 암이 함께 번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며칠 전 함께 점심을 하면서 옛일을 회고했지만, 완치가 어렵다는 그의 어두운 얼굴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5·18은 그렇게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한 시민항쟁이었다.

##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노경수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도시공사 사장

최근 광주시가 앞으로 20년 간 광주의 변화를 내다보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지난 1981년 도입된 장기 계획으로 공간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부 변경하지만, 처음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광주는 '개발 확장기'라고 할 수 있는 제1차(1981~2000년), '상부 신도시와 도심 공동화시대'의 제2차(2001~2020년)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제 2021~2040년까지 제3차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앞서의 1·2차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와 반성을 되새기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 계획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 패러다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시기본계획의 의미와 가치가 행정이나 시민 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한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종합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용도 지역의 결정, 시설의 공급 및 배치 등 토지 이용, 도시 개발 영역만 관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계획의 출발점은 지난 계획에 대한 성과와 반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상시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이번 제3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도시 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료 축적부터 계획 수립, 추진 및 실행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정 내 실·국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한층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민선 6기에 도입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보완도 시급하다. 시민 대표가 초기 단계인 미래상 및 핵심 이슈 설정에만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계획(안) 수립과 결정 과정에는 동력이 약화되는 '용두사미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 분권의 시대에 시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지표면에서 볼 때 광주는 이미 방향 곡선으로 접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는 2014년 147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45만 6000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7년에는 126만 3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5년 간 일자리와 직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39세의 청년 계층의 전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현 시점에서의 광주가 말 그대로 중대한 기로에 봉착해 있다는 견해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광주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행, 남북 교류 확대, 저성장·저출생·초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4차 산업 혁명, 스마트시티, 기후 환경 변화, 코로나 19 사태 등 중대한 이슈에 대한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도 민선 7기 비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공 지능

(AI) 집적 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 경전선 전철화 등에 따른 도시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미래 인구 감소를 용인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축소 지향형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인구 감소 과정을 거친 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광주가 다시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쇠락할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광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20년 후에는 광주시의 인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계획 수립 방법을 답습해서는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그 시작은 광주시가 현 재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보는 작업이다.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기고

### '로컬 푸드'에 답이 있다



박치엽  
농협 전남지역본부 원예유통사업단장

우리 조상들은 조선 전기까지는 대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재배해 소비하고 남은 농산물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농업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들이 개발 보급되고 유통 경제가 발달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계기로 시장이 활성화 됐다. 이는 오늘날 전통시장이나 농협 하나 로마트,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상권의 시초라 할 것이다.

특히 여러분들은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 발자국'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먹거리가 이동한 총거리를 의미하며 식품 수송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푸드 마일리지의 수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식품이 오랫동안 운송되면서 신선도나 식품 안전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각종 화학 물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식품을 장거리 운송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 오염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푸드 마일리지와 연관된 개념으로 농산물의 생산, 수송, 음식 조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음식의 탄소 발자국'이라 한다.

이와 반대된 개념으로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이 있다. 세계화로 인해 먹거리의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농약 등 화학 물질을 사용한 먹거리 대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 푸드 운동이 시작됐다.

로컬 푸드 운동은 소비지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 시키지는 취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농산물 직거래, 농민 장터, 급식 운동 등이 대표적인 로컬 푸드 운동이다.

로컬 푸드 운동을 통해 몇 가지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세 번째,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 온실 가스를 감소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로컬 푸드 운동의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연결하는 로컬 푸드 직거래, 정해진 시나 기간에 로컬 푸드를 배달해주는 꾸러미 배송, 로컬 푸드 음식 재료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이 늘어나는 등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공로로운 보이기에 화려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가치와 신선함이 물론 풍기는 반찬 재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때 풍성할 것이다.

지구를 사랑하고,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첫걸음. 가까운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시작해 보자!

## 社說

### 심상치 않은 해남 지진 최악 상황 대비해야

최근 지진이 잇따랐던 해남 지역에서 과거 조선 시대에 규모 6.7의 강진까지 발생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용기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지질환경과학과)는 엇그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지진 기록에 의하면 해남에서 1436년(세종 18년) 2월 규모 4.1, 5월에는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사 지진은 지진계가 발명되기 이전인 19세기까지 일어난 지진을 의미하며, 역사 문헌에 서술된 자료를 분석해 진앙과 규모 등을 추정한다. 김 교수는 "역사 지진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해 중앙에 보고되고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몰랐던 단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해남 지진 이후 지진학자들은 광주 단

층이나 영광 단층 등이 영향을 줬 것이라는 등 여러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해남 외에 목포·영암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남·목포권에 여러 개의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지진화산국의 한 관계자도 "영광 단층, 광주 단층은 거리상 영향을 주기 힘든 만큼 해남 지진을 유발한 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최대 규모 3.1에 이르는 지진이 74차례나 발생,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상청이 지난 1978년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지만, 단층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해남·목포권 단층의 종류와 크기는 물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 산정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이를 토대로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DJ센터 2전시장'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광주시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 내에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제 2전시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잔디 공원과 5·18 교육관을 얹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DJ센터 제 2전시장 건립 대상지를 기존 DJ센터 제1주차장에서 5·18자유공원으로 옮기는 변경 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 내 2만1750㎡(잔디공원 1만 4688㎡+518교육관 일부 7062㎡)에 DJ센터 제 2전시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5월 사적지 훼손'을 이유로 5월 단체들이 반대해 이전에 이미 철회했던 방안을 시가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008년, 5·18자유공원 부지를 제 2 DJ센터 건립 부지로 조성하려는 광주시 계획을 놓고 5월 단체 등은 '사적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상무대 법정과 영창시설 등 사적지 보존을 내세우며 반대했었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시는 다시 이번엔 계획을 반복하면서 5·18 자유공원이 제 1전시장과 인접해 연계·접근성이 좋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현재 잔디광장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산책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그동안 도심 속 공원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 온 인근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가 편의만을 생각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금이라도 5월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디케(DIKE)는 정의의 여신이다. 정의를 뜻하는 디케는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바뀌었다. 영어 저스티스(justice)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신화 속 디케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로마시대 유스티티아에는 공평함을 뜻하는 저울이 추가됐다. 오늘날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천칭(天秤: 저울)을 든 모습을 한 것은 그러한 유래와 무관치 않다. 판결의 엄격함과 공정성을 견지하라는 의미다.

요즘처럼 '정의'라는

정의로웠을 것이다. '중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기억이 바로 생생한 증거'라는 확신 아래 지난한 시간을 견뎌왔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이 30년간 수요집회를 열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할머니들을 교묘히 이용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로 정의로운을 결정된다"고 했다. 정의는 구호나 담론이 아닌 행위로서 그 가치가 담보된다는 의미다.

정의(正義)에서의 '의(義)는 '양(羊)과 나를 뜻하는 '야(我)가 합쳐진 글자다. 양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던 제물을 상징하기에, 의로운 하늘과 내가 일치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의를 기억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면 '위장된 정의'일 뿐이다. 우리시대의 정의가 자꾸만 폄하되고 다름으로 비호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분명한 것은 정의는 더 이상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 '위장된 정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